



미추홀



|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미 추 출 종 학 사 회 복 지 관 | | 홍영선 | 편집인 | 전미옥, 조덕환, 김석중, 윤현주, 천명옥, 박동식, 김은채, 김용운, 김주원, 이재영 | 주소 | 인천시 남구 염창로 97(주안5동 22-59) | 전화 | 876-8181 | 팩스 | 876-8416 | www.michu.or.kr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제37호 (매월발행)

남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력자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관장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관장

어느 시대에서나 청소년들은 희망이자 건강히 자라나야 할 보물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올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비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때로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가 자리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인천 남구청 옆에 위치한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김경미 관장은 일생을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청소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기 위하여 김경미 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Q. 관장님과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관장입니다. 개인적으로 1991년부터 지금까지 27년째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곳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은 운영법인인 설립취지와 남구 청소년정책에 맞춰 지역과 하나 되는 '남구하모니'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게 효·인성분야·진로분야·문화분야·지역연계분야·체육활동분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또한 특화시설로는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운영하는 카페 '커피숍'과, 중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자동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미용시설과 가족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족D·I·Y복공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올해 1월 인천청소년회관에서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의 전신인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은 1992년 개관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각 지역 내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본격적으로 변화, 명칭통일 및 확장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남동구에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면서부터 인천은 각 구별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남구만이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었기에 2016년 인천시청소년회관이 인천시에서 남구로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1월부터 남구로 이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청소년전문시설로의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Q.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의 자랑과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1월부터 (재)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재)성산청소년효재단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수련관,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8개 기관의 다양한 청소년 관련기관을 위탁운영하기에 청소년 기관 운영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력을 알기에 2015년 인천시와 여성가족부의 약 9억원 기량의 지원으로 전체 시설의 리모델링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예전의 노후 된 분위기가 밝고 폐쇄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되며 리모델링 전보다 약 89%의 사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청소년 복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자동차'는 중학교 1·2학년 40명기량의 학생들이 모여 유해환경과는 멀어진 환경에서 놀이와 체험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여 학교외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청소년의 자치·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역량과 인성을 고루 갖춘 청소년으로의 윤리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인천남구 유일의 청소년수련관입니다.

Q. 남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은 항상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행복하고 바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도 반납해가며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과 후와 주말 동안 어디에서 놀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에는 '방방방'이라는 놀이공간에서 친구들과 만화책도 보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등 다양한 놀이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면 언니 또는 형처럼 최선을 다해 상담해 줄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문화놀이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올해부터 구립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구가 원하고 재단이 원하는 방향에서 수련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구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기반형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특화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는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패러다임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추억이 담긴 청소년수련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가득 쌓아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에 동생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행복전당의 공간 인천남구청소년수련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풍성함을 위해 밭을 뛰는 지역일꾼

주안6동 김순국 통장



풍성한마을사업을 진행 중인 주안 6동 김순국 통장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항상 이야기 되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천 남구 주안6동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 사업 '풍성한 마을'이 2016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선정, 어울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풍성한 마을'은 인천시 주민이 만들 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년간 공동체 활동을 이어온 사업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주도적으로 이어온 주안6동 김순국 통장을 만나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Q. 통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으로 이사 온 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와서 처음에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와서 보니 상습적 쓰레기 무단 투기장소가 많이 있음을 보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간의 다툼이 있는 것을 목격한 이후 '지역을 위해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빌리안의 주민들 간의 반상회를 제안·주도하였고 사비를 들여가며 무단투기장소에 꽃을 심고 페인트칠을 하며 정리정돈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장소에 쓰레기와 버리지 않음을 보았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 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주안 6동의 마을 만들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통장이 되고 난 이후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체 조성교육'을 수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마케팅 사업에 일하였기에 마을만들기를 기획했을 때 세 가지의 큰 블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마을기획, 두 번째로는 주민 참여여당, 마지막으로 주민동아리 기획입니다.

처음으로 마을기획에 있어 마을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 마을 이름을 신청 받았습니다. 치열한 공모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디 함께 녹일 수 있고, 서로 협력하여 행복이 풍성해지길 바란다는 의미에 '풍성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후 마을학교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이 2시간 씩 총 10번의 교육을 받으며 마을 변화에 대해 논의하며 마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고 현재는 지역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속 밭을 뛰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마을의 중·장기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 문화·환경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Q.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마을의 주민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애환심이 고취되어야 합니다. 애환심이 높아질수록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도가 상승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큰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함께 동참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작은 변화가 이웃이 함께하는 삶과 싶은 마을로 변화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흥남면옥



아들아들한 왕갈비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주안5동에 위치한 흥남면옥은 이동갈비와, 왕갈비가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입니다. 고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밀반찬들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굽은 도리지 무침은 고기랑 함께 먹으면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며 맛을 고기의 달달한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물론 도리지무침 이외에도 여려 상상한 채소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찜을 즐기시는 것 어떨까요?

특히 흥남면옥의 왕갈비는 연하고 부드럽기가 일품이라는데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갈비를 가족들과 즐거운 외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꿀팁! 흥남면옥에서는 갈비포장판매를 30% 할인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선물로 사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예약문의) 032-441-1444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21-12

황금오리



수고한 내 몸을 위해 건강한 선물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보양 오리 음식점!

* 2013 맛있는 집 경연대회 최우수상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황금오리는 무더운 한 여름날 우리들의 몸에 건강한 보양식이 될 맛있는 오리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오리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보양 음식으로는 능이버섯 오리 백숙이라고 해요. 오리백숙이라고 해서 기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금물! 일단 드셔보시면 그 깔끔함에 한 번 더 놀랄 걸입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기관지·천식·김기·신후병·클레스테롤·신화·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암에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백숙을 다 드시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맛있는 백숙죽 한 그릇의 여유까지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 예약문의) 032-861-2010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8(주안동)

정자갈비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양념돼지 갈비 요리점!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정자갈비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식사하라, 아이들 행기느라 많이 힘드셨죠? 정자갈비에서의 식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준비되어진 안전한 놀이방과 함께라면 말이죠.

양념갈비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명이나물과 함께 먹어보시면 달달하면서 느끼하지 않는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걸니다!

이번 주말, 타기 쉬운 양념갈비를 알아서 잘라주시는 친절한 직원 분들의 서비스와 함께, 가족들과 잊지 못할 외식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 예약문의) 032-874-9588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12(주안동)



복지관 소식



시민기자양성교육 '나도 기자다' 1기 1회차 교육

- ▶ 일시 : 2017년 3월 6일(월)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 소회의실
- ▶ 내용 : 시민기자양성교육과정 '나도 기자다' 교육 진행



2017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연수

- ▶ 일시 : 2017년 3월 9일(목) ~ 3월 11일(토)
- ▶ 장소 : 제주도, 우도
- ▶ 내용 : 힐링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직원연수



NIB 이웃사랑 성품 전달식

- ▶ 일시 : 2017년 3월 13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내용 : 남인천방송(NIB)에서 쌀 500kg와 라면 30box의 이웃사랑 성품 전달식 진행.



퀼트교실 상반기 간담회

- ▶ 일시 : 2017년 3월 16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1층 퀼트교실
- ▶ 내용 : '퀼트이야기' 2016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7년도 활동 방향에 대한 간담회 진행



3월 통합교실

- ▶ 일시 : 2017년 3월 22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방과후교실
- ▶ 내용 :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장애 아동의 대인관계 형성능력 향상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 소식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소년소녀 가장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공양미 지원 사업 실시

종류	대상	지원내용
장학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이 어려운 중·고·대학생 총6명 (1인 50만원)	3,000,000원
공양미 지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약100 여 세대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공양미 1,600kg

미추홀공덕회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실천으로 소년소녀가장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공양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부탁드리며, 추천서는 수미정사 종무소 및 미추홀공덕회 사무실에 비치해두었습니다.

추천할 이웃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하셔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정사 불자님들, 미추홀공덕회 후원자님들의 자비나눔 실천으로 온누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사찰 수미정사 소식



수미정사 회주(사), 미추홀공덕회 이사장(종연스님)은 현정회 회원 분들과 대만불교의 복지와 생산불교 현장 답사를 위하여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현정회는 불교인권익보호를 위해 출범한 단체로서 불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순례를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종연스님께서는 "자재공덕회의 방문을 통하여 의료, 복지, 교육, 문화의 4대 사업이, 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접목하여 사회로 회향하는 모습은 한국불교가 본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재가 출가자가 상호연기적 관점에서 관리 운영하는 의료, 교육, 문화 등은 자재공덕회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인천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미추홀공덕회도 철저한 이타적 불교복지로 회향하여 소액기부자들이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공덕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아름다운 세상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

-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자격 :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아름다운 당신!
- ▶ 모집분야 : 재능기부 / 도시락·밀반찬배달 / 재가어르신 안부전화 / 저소득가정·어르신 가정방문 / 장애아동 활동보조 / 시설봉사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자세한 문의는 ☎ 032) 876-8181로 부탁드립니다.

보리수 도예 공방을 소개 합니다.

▶ 보리수 도예공방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인원	대상	교육비	일시
도예의 꿈 (아동도예)	최대 20명	6세 ~ 13세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월요일 17시
도예의 숲 (성인도예)	최대 20명	20세 이상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수요일 15시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수강료 및 이용문의 : ☎ 032)876-8181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대상! 성실한 수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관련서류자문)

알짜배기 소식통

경제는 튼튼하게, 살림은 든든하게! 내수활성화 방안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1. 가정과 일터를 건강하게!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함께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매월 1회)

구직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현행 4만3000원이던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립니다.
(4월 시행령 개정)

취약근로자 처우 개선

텔레마케팅, 대리기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하고 (7월),
더 많은 배달대행원이
신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월)

2. 살림이 조금 더 넉넉해집니다.

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 확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월세대출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경차를 갖고 있으면, 연 2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드립니다.
(현행 연 10만원)

KTX·SRT 최대 반값 할인

KTX·SRT 고속철도를
일찍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합니다.
(3~4분기)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합니다.
(17년 말)

수능응시료 등 5개 수수료 인하

수능응시료,
여객공항이용료,
한국시사력시험료,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국립생태원관람료 인하

3. 청년들이 돈 걱정 줄이도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청년 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립니다.

청년층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청년층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신설합니다.

청년취업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발표

청년이면 군일대 늦춰준다 청년취업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발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청춘 문제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청년고용대책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창업 시 입대 연기, 졸업유예하면 등록금 부담 완화

그간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작년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청년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보완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 군 입대 연기, 창업을 위한 자유로운 대학 휴학 등 창업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군 입대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을 한 후 창업을 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창업을 위해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0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위험 정도를 낮추기 위해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현재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구직난에 등록금 부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취업난으로 즐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체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등록금 부담까지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졸업 유예 또는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학기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열정페이 감독 강화, 생계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미취업 고용 이하 저소득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청년·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재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율러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들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 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에는 선제 감독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한 근로현장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할 것이랍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합니다. 더불어 임대 상습 청탁사업주에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역이자를 물리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고용환경을 개선해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끼리는 중소기업의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청년내일체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의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통·국가·지자체 4만 3천여 명, 공공기관 2만여 명 등 총 6만 3천여 명은 신규채용하고 이중 47.2%를 상반기로 뽑습니다. 이율러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해 청년체육을 늘리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에요.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채용하지 못하도록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경력이나 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동네탐방

꽃 피는 봄날처럼 음악으로 인천을 깨운다. 인음챔버오케스트라



인음챔버오케스트라 공연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 바람이 실랑실랑 불어오고 있는 계절입니다. 겨울 내 움추린 생명들이 춤추며 일어나는 넘치는 생명력 같은 음악을 하는 곳이 있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천 남구 제물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음챔버오케스트라' 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사와 포부를 들은 중,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한층 더 빛날 불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인터뷰였습니다.

Q. '인음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 '인음챔버오케스트라'는 8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6명은 기악, 2명은 성악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획하여 공연을 진행하지만,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의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희의 공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인천 뿐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방곡곡과 외국 까지도 찾아가 저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인음예술단'이라는 단체 안에 7개의 단체에 속해 있었다가 현재는 독립적 단체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마을박물관

남구의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도화동 속골박물관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자키기 위해 생긴 '마을박물관'을 아십니까? 현재 인천에서 마을박물관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남구와 시립박물관이 공동 조성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다르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시의 주제는 박물관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한 곳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마을박물관이 인천 남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용현동에 위치한 '토지금고마을박물관'과 도화동에 위치한 '속골마을박물관'입니다.

그 중 이번 3월호 '전통을 찾아서'에서는 속골마을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속골마을박물관은 2016년 10월 토지금고마을박물관에 이어 개관한 제 2호 마을박물관으로서 인천 남구 도화동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곳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도화동 주택기에 위치하여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도화동 옛 주택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마을박물관으로서의 의미도 더욱 깊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도화동 일대의 옛 지명인 '속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은 총 2개로 제 1전시실인 상설전시실에서는 지명의 유래를 비롯하여 경인철도, 염전, 선인재단 등 도화동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위

또한 주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행진원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던 공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던 중 그 곳 아이들이 저의 양손을 꼭 잡았는데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이 저의 손을 타고 올라온 느낌입니다. 그 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그 후 몇 달 동안 아이들에게 기타와 음악을 가르쳐주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 곳에서 저희의 음악을 듣고 싶다 요청해주세요서 현재 10건 이상의 공연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주어진 공연에 있어 최선을 다한 연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와 계획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음악을 알리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듣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는 음악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또한 2011년에 정식으로 독립을 하여 단체를 형성하였기에 자생을 위한 여러 노력을 거치며 저희 단원들끼리의 단합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연주를 진행하는 타 단체보다 공연 간의 호흡이 매우 잘 맞습니다.

지난 3월 13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제물포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 일정도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그 아쉬움

인천 대야작라는 섬에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당일 내륙으로 향하는 배가 없었기에 하루 더 머물었습니다. 그러면 종 어르신 한분이 저희에게 '이런 곳까지 방문하여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 너무 고맙다.'라는 진심어린 인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은채 수습기자

아이의 꿈을 키워요

I can do it . 시대를 넘어 손 끝으로 타인의 마음을 치유한다. – 화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직접 찾아가고 응원하는 'I can do it' 이번 호에는 방과 후 교실 정재은 아동의 장래 희망인 '화가'를 만나보았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유화 교실 최명례 선생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Q.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화 교실 담당을 맡고 있는 최명례라고 합니다. 장애 아동들과 장애 어머니들에 대한 정서지원 유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월 13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제물포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Q. 화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 일정도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려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그 아쉬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내 유화교실

을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독학으로 약 5년간 유화에 대한 공부를 하며 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는데, 환자들의 정서 지지와 마음의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제가 자신 있는 그림을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화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화가가 되려면 물론 그림 실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에게 그림 실력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여 그림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그의 일생동안 그림 실력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적에 일일이 빼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 할 적에 힘들다가 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제 스스로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 더욱 고민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화가 최명례



동아리 탐방

도화지 위에 행복을 그리는 동아리 인화여자중학교 만화동아리 '인화코믹스'



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렇다고 학업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아리 학생들은 공부와 그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Q. 동아리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는 100% 실력으로 부원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동아리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원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의 실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예고를 제외하고 매년 높은 수준의 회자를 발간할 수 있는 학교는 저희 빼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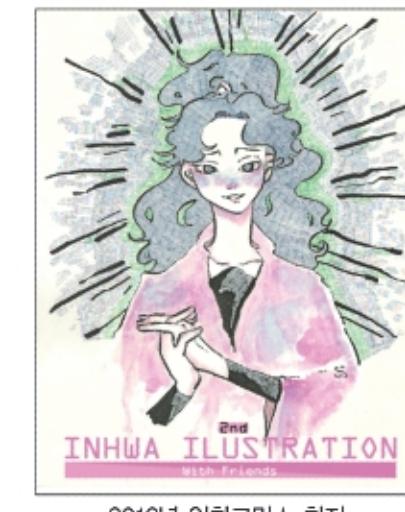
앞으로도 연말마다 꾸준히 높은 수준의 회자를 발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지속하고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 인천 남구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 동아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Q.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저는 항상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여 그림이 학업에 지친 아이들한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이들을 볼 때 행복하듯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혹시 그림 그리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며 교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인화코믹스 회지

Q. 인화여자중학교 만화동아리 '인화코믹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 인화여자중학교 '인화코믹스'는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만화동아리입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진지 울해로 약 10년 되었습니다. 현재는 12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함께 꾸준히 부활동을 진행합니다. 3월부터 부활동을 진행하면서 부원들이 그린 그림과 졸업한 선배들의 뛰어난 작품을 한데 모아 매년 말 회자를 발행합니다. 1년 간의 작품을 꾸준히 모아 만들어진 회지는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할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축제에서 일러스트 전시와 페이스 페인팅을 진행하고, 펜

